QR코드를 찍으면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 기술

간편하면서 내구성 높은 클린팟 가습기 애로기술지원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사건이 국내에 발생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가습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 가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살균제에 의해 폐질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난 것이다. 사건이 커지자 당시 정부는 살균제 내에 강한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미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시기였기에 피해자 가족들은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혀야 했다. 이때부터 ㈜미로는 온 가족이 안심하면서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습기는 없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나온 제품은 '클린팟 가습기'. 전자기기가 아닌 식기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개발했다는 ㈜미로의 젊은 세 대표들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과는 결코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들의 동행 이야기를 들려줬다.

기술지원기업 ㈜미로
연구책임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금형기술그룹 고영배 수석연구원 & 이정원 연구원

천식 앓는 딸 위해 만든 제품

㈜미로는 2014년 2월 인하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던 세 명의 젊은 청년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중소기업이다. 마케팅을 담당하는 오용주 대표와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서동진 대표, 해외 시장을 관리하는 김민석 대표가 공동대표자가 돼 회사를 설립했다.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던 이들이 만난 만큼 사업 아이템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의 부작용이 이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줬고, 결국 세 대표는 '가족'과 '안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둘째 아이가 천식을 앓고 있었어요. 아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기침이 폐렴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큰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집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아차 싶더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바로 '클린팟 가습기'입니다. 사실 가습기의 목적은 매우 단순하잖아요. 공기 중 건조함을 촉촉하게 바꿔주는 것. 이 목적에 맞게 고민한 결과 지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동진 대표)

본래 가습기는 본체가 아래에 있고 수조가 위에 배치된 구조다. 하지만 이 구조로 만들어진 가습기의 경우 구석구석 닦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물통 안에 손이 다 들어가지도 않아 청결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다. 본체 내부는 분해해 닦을 수 없기에 쌓여가는 먼지를 보고만 있어야 했다는 서동진 대표.

"가습기 안에 서식하는 세균과 먼지,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걸 해결해야겠다 싶었죠. 마치 식기구처럼, 모든 걸 분해해 물로 깨끗이 씻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 결과 지금의 '클린팟'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물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간편하게 닦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는 생각은 '단지 형태'의 가습기 디자인으로 이어졌다. 널찍한 단지 모양의 용기에 물을 붓고, 습기가 공중으로 퍼져나가도록 돕는 본체를 물 위에 부유하게 만들었다.